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5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3. 31(금) 14:09~17:20
- 장 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김진각 위원
 배은주 위원
 서승미 위원
 이훈경 위원
 장미진 위원
 장인주 위원
 정갑영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성태 위원
- 불참위원 : 김미라 위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5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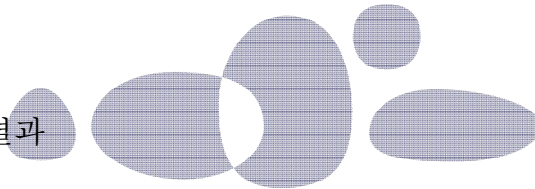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님을 제외한 위원 11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신임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등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사항 중 국회지정사업 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지정사업이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특정 사업이 추가 편성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부서와 주관 단체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위해서 국회지정사업의 주관단체가 오후 3시경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의결안건이 3시를 넘기게 된다면 중간에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결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차회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회의자료 4쪽입니다.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제351차 전체회의의 경우 의결안건이 5건이 상정되었고 1건이 수정의결 그리고 4건이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52차 전체회의에는 서면으로 상정된 의결안건 1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95호 신입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입니다만, 본 안건은 모든 안건 논의 후, 마지막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번호는 제996호 8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TF팀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안건번호 제996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소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소위원회별 회의를 진행했고,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 소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위원회 운영계획의 구성을 보시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설소위로 경영전략 개선 소위원회,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윤리·인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각 소위원회별로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외부위원을 확정된 소위원회도 있고 외부위원은 조금 더 운영한 다음에 논의하고자 한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윤리·인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미진 소위원장님, 배은주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이 참여를 하시는데 논의를 통해서 연극배우인 공재민 씨와 법무법인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제도운영 개선 TF는 장인주 위원님이 팀장을 맡아 주시고 이훈경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이 참여합니다. 지난 7기 위원님 두 분에게 그동안의 이슈와 심의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뉴서울CC운영 개선 TF는 홍성태 위원님이 팀장을 맡아 주시고 김진각 위원님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으로 나운봉 교수님과 한상린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융합 기반 구축 TF는 김미라 위원님께서 팀장을 맡아 주시고 정종열 위원님이 참석하고 사무처의 해당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소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은 과업을 완료한 후 해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이 부분은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한 결과 공유는 사무처가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회람하고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님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목표와 추진일정은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소위원회 위촉 및 구성 요건입니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경험과 학식,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고루 균형 있게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20%는 참여하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이 구성의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특성이나 전문가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리·인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딱 맞게 균형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기 때부터 재정안정과 기금확충 문제와 관련하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하고 국회와 연계해서 결실을 맺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오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술 후원활성화 소위원회라고 이름은 확정했는데 사실은 이 소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재정안정화와 연동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후원활성화로 가면서 내용이 후원 인식 확산 또는 예술 가치 기부 등으로 축소되어 버리면 재정안정화나 기부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과제로 삼고 가는 내용이 누락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금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소위원회가 마련되면 그 소위원회와 연계해서 뭔가 포럼도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위원회가 기금 관련하여 일이 있으면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국회에 소개시켜드리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술후원활성화’ 라고 소위원회 이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여쭙보고 싶습니다. 변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에서는 예술나무운동이나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는 캠페인 등을 더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공재원 즉 일반회계나 체육기금 등 전입 확대는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 계속 이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국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국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든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목표나 추진 일정에 같이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정숙 위원 : 예, 맞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요 의제로 해서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기관 중점 운영 방향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는데 지난 50년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5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를 논의하면서 거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후원을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국회와의 관계에서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운영목표만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우리 시스템 자체에 만족하는 수준 안에서의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97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비영리 외부 활동 겸직 승인 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비영리 외부 활동에 대한 겸직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 위원회 대우 및 겸직 금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1조 위원회 대우 및 겸직 금지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부 활동에 대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4쪽의 내용을 보시면 승인 대상 외부 활동 및 직위로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의 이사와 사단법인 청정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위원회 정관에는 영리 목적의 외부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비영리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외부 활동은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활동으로 미루어볼 때 비영리적이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고 위원장님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지속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의사 결정

구조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님을 고려해서 호선의 주체이신 제8기 위원회에 본 안건 외부 활동의 승인을 보고 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한 각 규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활동이 총회와 서거 행사 준비로 소요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청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상징적인 교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허가 신청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병영문화 개선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캠프리딩코리아' 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있었고 그 외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감사실의 감사 의견을 들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한 다른 조직들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이 2가지 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체계 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호선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김영삼민주센터는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비서로 시작했습니다. 비서 활동을 했고 지금 정치활동을 하거나 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거의 매달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청정은 청년정치학교가 사단법인 청정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9명이 출마했고 그중에 7명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2명은 민주당으로 당선되고 5명은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진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름은 '청년정치학교' 이지만 정치 지망생을 상대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시민 정치 교육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한 사람들의 10~20% 정도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민 정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정갑영 위원 : 그냥 하시죠.

정병국 위원장 : 혹여나 우리 위원회에 누가 되거나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참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초반에 제가 자꾸 의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영리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요소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신 결과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상근직이고 예술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영삼민주센터도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사단법인이고 거기에서 회의를 한번

두 번 할 때마다 정치인들을 만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명실공히 이사의 직함을 갖고 계시고 사단법인 청정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청년을 키우는 루트가 되는 활동단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상징성을 생각할 때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위원장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동안 이것을 그만둔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봐도 어쨌든 2개의 사단법인에서 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실공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알게 될 일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도 임기동안은 잠시 보류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강하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의 자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쓸 만큼 한가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서 임기 동안은 이런 일들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회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제가 감사로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권해석도 하고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법들을 다 살펴봤더니 일부 입장에서는, 정정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결국 정치적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치적 우려인데 제가 볼 때 법적인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 우려가 있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정숙 위원님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 직원들에게 조금 더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우리 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협소한 위치에서 아직까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자리를 못 다져가고 있는,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의 독임제 구조를 여전히 저희가 견고하게 내부 통제를 받고 있는, 그리고 군법체계 구조하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평생 걸어왔던 그 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을 기리는 기념사업회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학교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시민 정치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 과정을 살펴봤을 때 민주주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기관은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문화 역시도 그런 민주주의 교육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감사기구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겸직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심대한 누를 끼치거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참고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했는데 공람은 안 드렸을 텐데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이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 저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승인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승인 근거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요원 감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정부기관으로 있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진 게 최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기타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유권해석도 받아봤고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너무 저희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허용되어있는 범위. 그리고 아까 정정숙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 재정 기반의 안정성 관계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국정과제가 맞물려 있고요.

남요원 감사 : 예, 맞물려 있고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한 것에 의하면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공공기관이 겸직 승인의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논거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고 경직되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겸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진각 위원 : 위원장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영리 목적의 활동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정치가 어떻게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소수의견이어서요.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OK'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술위원회 안에서 직원들이 뭔가 자유로운 활동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위원장이 얼마든지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자, 예를 들어 지금 사무처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별 등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미 에너지가 쓰였다는 겁니다. 저는 상근직에 있는 분이 이것을 놓지 못해서 이런 에너지가 이미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낭비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하여 그것에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놓고 싶지 않아서 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빠지면 와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못 놓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민주센터가 지금 채무가 있는 상태 속에서 세금을 못 내서 차압이

되어 있고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돈을 건어서 근근이 유지를 하는데 빠져나오기가 민망해서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치학교 같은 경우 제가 설립자입니다. 설립자고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이것을 뽑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 상당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캠프리당코리아’ 라고 병영문화 개선과 독서 훈련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 이 2가지만 해도 저에게는 국회의원을 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둬야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캠프리당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서지원이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임 통보를 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 타이틀이나 제 이름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인데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하지 않는 한 이런 우려, 그러니까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그런 우려를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이것은 제 판단을 존중하셔서 표결은 안 하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보고사항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개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국회지정사업 보고의 건 2건이 있고 2023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안건은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국회지정사업의 주관단체에서 참석해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지정사업의 보고를 들으신 후 관련하여 질의 및 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 보고 후 계속하여 김나영 부장이 나머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연도별 평가 결과 보고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나오신 분이 어디죠? 어반브레이크인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어반브레이크 장원철 대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2023년도 국회지정사업 어반브레이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국제교류부장 김나영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부 소관 4가지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어반브레이크부터 먼저 하세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어반브레이크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2억 원,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억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스트리트 아트나 아트 토이 등 스트리트 한 비주류를 시장에 끌어올리는 시도로 기존의 아트페어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고요. 관람객 수는 총 6만 명입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지원금은 모두 대관료고 자부담 금액은 설치비로 상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진작가 발굴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올해는 쌍방향 프로그램 구성과 신진작가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반브레이크 장원철 대표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장원철 대표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저희 어반브레이크는 기존의 아트페어들이 전체적인 공간을 갤러리들에게 판매를 해서 전시를 하는 아트마켓의 성격이 있다면 어반브레이크에서는 젊고 비주류의 아티스트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작가들에게 부스를 받지 않고 있고 작가들에게 오픈콜을 통해서 작가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전시기회를 주며 전시지원금을 주고 해외에 있는 디렉터와 해외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어반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반브레이크는 도심에서 젊은 아티스트, 서브컬처나 다양한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들에게는 꼭 등용문이 되고 그들이 꼭 나가고 싶어 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적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혹시 설명을 놓친 건가 싶은데 보완점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보완점으로 올라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작가들의 참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픈콜에 아티스트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조금 더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그냥 단순히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선발 이후의 일들을 빌드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그리고 이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저 등까지 보완해서 이번 어반브레이크에서는 참여하는 아티스트 25명 정도의 오픈콜로 선발된 작가들 외에 저희가 초청하는 아티스트, 해외에서 초청하는 아티스트까지 함께해서 이번 어반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진 위원 : 지금 이 분야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여기 교류 프로그램이나 축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와도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비주류고 서브컬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예산이나 지원하는 노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미진 위원 : 1억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실질적인 예산은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갑영 위원 : 1억은 대관료잖아요?

장미진 위원 : 예산을 정확하게 안 내셨네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장미진 위원 : 왜 그러신 건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전체예산으로 했더니 작년에 저희들이 정산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가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꼭 기다리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을 시킬 것이고 올해는 미국의 ‘그래비티뮤지엄’이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뮤지엄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작품판매 경로나 판매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사실 그 작가들에게 “어반브레이크에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번 어반브레이크에 나오면 2년 동안 본인들이 해야 될 전시의 스케줄이 다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잘 안 알려진 아티스트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기획자, 콜렉터, 관객들에게 소개가 되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다고 했고요. 또한 판매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에서 7억이 들어가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죠?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그동안은 사실 제 사비를 많이 넣어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계속 장원철 위원장님이 계속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이 사업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세요?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김나영 부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지금 저희 위원회의 기능상 저희는 창작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 중심으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핸들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지정사업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더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대행께서는 그동안 국회에 그 상황을 전달했나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해야죠.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로 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장원철 위원장님께 맡길 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흡수해서 해야합니다.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기관에 넘기고 해당 기관이 판단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장원철 대표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장원철 어반브레이크 대표 : 예, 고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으로 국회지정사업 코리아웨딩 뉴서울오페라단입니다. 들어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단장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국회지정사업 코리아웨딩 뉴서울오페라단 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부 김나영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다음은 뉴서울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입니다. 2022년에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6월 7일과 8일에 걸쳐서 태국 방콕의 국립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태국 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협회의 협력으로 운영이 되고요. 기금 지원예산은 총 3억입니다. 오페라의 특성상 참여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사례비가 만 정도를 차지하고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문화적으로 오해가 생길만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추진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뉴서울오페라단의 홍지원 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홍지원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안녕하세요, 뉴서울오페라단 홍지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국에서 하는 오페라는 한국의 민속촌을 배경으로 한 맹진사택 경사의 스토리를 각색하고 민속촌을 소재로 한 오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창작오페라로 춘향전도 있고 여러 작품이 있지만 맹진사택 경사는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어떤 창작오페라를 세계에 홍보하면서 우리 문화를 아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에서는 여태까지 한국의 오페라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거기에는 K팝이 성황리에 되고 한국의 문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콕에서 처음으로 한국 오페라를 올리고, 앞으로 이 오페라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클래식 문화를 서로 교환하고 그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클래식을 선호하고 학생들도 한국에 배우러 오고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이 6월 7일과 8일 양일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과거 태국

에서 저희가 전쟁을 했을 때 한국에 참전해서 많이 도와준 게 6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대로 초이스를 해서 국립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기 전에 태국의 공연단이 1시간 30분가량 태국의 전통공연을 하고 저희 오페라가 올려집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서 6시경에 태국 공연을 합니다. 저희 오페라 같은 경우 한국에서 보통 8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에 양일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150명 정도가 가서 공연을 했으면 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서 10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악가들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물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태국에서 한국 오페라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 오케스트라의 수준과 모든 분야의 수준을 보여주고 싶고 교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100명 이라는 인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거의 90%가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관계적으로 10%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비용뿐만 아니라 10%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왔다갔다하고 거기에서 과외로 발생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0%로 하면 저희가 정산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희 자체 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하면 정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주신 게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공연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이론적으로 전체예산의 90%가 투입된다면 이것은 예술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뉴서울오페라단 사업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받게 되면 기금에 10%를 저희가 넣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행사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왔다갔다하고 통역비 등도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갑영 위원 :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구조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몇 %라고 정한 바는 없는데요. 그동안 국회나 기재부와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최소한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e나라도움 속에서 자기가 쓴 자부담까지도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건이나 지금 건 모두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는 더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저희가 주최/후원 기관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주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국고지원을 받았든 지원기관은 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콘텐츠의 주최는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뉴서울오페라단으로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도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도 10%가 의무이기 때문에 정산 상 실제 50%가 들어가도 e나라도움에 10%만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는 자부담이 더 많이 들고 콘텐츠 제작비에서도 이미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작단체들의 특성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최는 예술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을 위탁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얼마만큼 보조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자부담 비용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잡으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이 드니까 여기까지만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이런 문제는 단지 1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연구원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공부할 때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구조를 짜고 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사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가 되었던 사업처럼 국회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단순히 이 지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혹은 의견을 주는 수준으로밖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형태의 지정사업입니다.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처음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평가하지 않았습시다. 국회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경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작년에도 우리 정종열 위원님이 이 사업을 가서 보셨습시다. 모니터링을 하셨

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과연 개선안이 나왔는지만 확인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술 전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구조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일종의 정치적 결정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관련이 있는 겁니까?

남요원 감사 : 예.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 예술위원회가 이런 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90%라고 해도 예산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해 줘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정숙 위원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평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그게 원칙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작품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우리 역할이 충분한가? 저희가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요원 감사 :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국회지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병국 위원장님께서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지정사업으로 특정되어 넘어온 것들은 저희가 집행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그게 국회지정사업은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된다고 법제화가 되어 있나요?

남요원 감사 : 예.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반브레이크는 1억으로 편성되어있고 뉴서울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3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편성도 그렇고 3억 편성도 그렇고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국회가 다 결정을 해서 오면, 사실 그동안 국회가 지정해서 지정교부사업으로 넘어온 것들은 저희는 관리만 했는데 이것을 7기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사업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관리체계라도 조금 더 강화해 보자.” 그리고 “우리 예술위 또는 국회에다가 성과를 축적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쌓여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것으로 해서 이런 보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런 보고도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글썄 저도 오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정종열 위원 : 사실 3억이라고 하지만 오페라를 한번 공연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고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오페라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걸 저도 잘 알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실 때 인원을 보시면 작곡가, 연출가가 되어 있는데 작곡가와 협업이라든지 소통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요즘 작곡가, 창작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가실 때 최소한 작곡가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포스터나 자료에도 작곡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보통 오페라의 경우 작곡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오페라의 공연으로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작곡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부대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대행사가 있었지만 최종에는 부대행사가 빠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부대행사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부대행사가 빠져서 아쉬웠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복입기 등 별개 아닌 것 같아도 태국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수가 있는, 그날 공연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부대행사를 진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적용하셔서 이번 공연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오페라가 처음가고 많이 가지 않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특히 오페라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페라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다음의 역할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저는 설명해 주신 것들 안에서 자꾸 질문이 생기는데 최근 오해가 생길 부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작년에 했던 공연인데 올해는 어떤 부분을 성장의 목표로 두고 공연을 준비하셨는지? 분명 작년과는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먼저 작곡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임준희 교수님이 작곡하셨고 이것은 사실 한문연이나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갈 때 임준희 교수님과 항상 많이 다녔고 요즘에는 학교의 원장님으로 계시어서 작년과 이번에는 같이 못 가신 겁니다. 그리고 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하루를 더 공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

습니다. 하노이 시장님께서 한국과 베트남의 행사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던 행사를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어차피 한국의 오페라,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러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000~5,000명이 오는 행사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가는 행사였고, 대중들이 보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자부담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베트남인들이 우리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살짝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 공연장은 사실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오페라극장도 상당히 크고 객석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태국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훈경 위원 : 문제점이 뭐였는지 먼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문제점으로는 맹진사택 경사 중에 미연이라는 인물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절룩거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그쪽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0%가 아니라 저희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곡비도 그렇고 무대비용도 인건비 수준으로 밖에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 뉴서울오페라단 자체에서 후원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는 저희가 외국에서 오페라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동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 10%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 전체를 통해서 총 비용은 얼마인데 10%가 얼마라는 전체구조를 알아야지 3억의 포션이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예산을 지원할 때 90%를 꼭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액수를 다 쓰고 예를 들어서 6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50%는 지원을 받은 것이고 50%는 자부담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90대 10으로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90%라고 하는 3억을, 3억을 다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서 받는 3억.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는 1~2년 전부터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3억 4,000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렇게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썼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꼭 써야 되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보조금이 3억이고 자부담은 통상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10%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상을 썼는데 그 이상 쓴 것은 왜 여기에 기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통장으로 국고에서 3억을 받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 통장에 저희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쓴 돈을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과거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무대장치 등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거기에 계산을 안 하셨느냐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공연은 지금 두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장미진 위원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나라도움 정산을 할 때는 이게 편하시겠지만 저희한테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는 전반적인 규모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e나라도움 정산을 그대로 올리니까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요. 정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창작자들이 예산지원을 받았을 때 정산하는 절차나 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회는 최소한 예산결과를 가지고 보고하고 그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창작자들에게 지원을 해 드릴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따다가 편성해서 자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어렵지 않게 더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고요. 국회도 아니고 예산 당국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가 창작오페라 하나를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려고 하면 준비과정부터 들어간 돈이 얼마고 정부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받았으며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예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셔야 다른 단체든 뉴서울오페라단이든 지원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이해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지 말고 여기에 와서 하실 때는 “사실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고 예산을 쓰고 결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애로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오히려 과거 e나라도움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 썼던 돈 그러니까 뉴서울오페라단의 통장에 들어간 돈이 다 증거이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e나라도움은 결산을 할 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값으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예술위원회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왜 뉴서울오페라단은 국회를 통해서 직접 이런 지정 예산을 받았는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으신 건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 것인지?” 를 따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총액 등 사업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여쭙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는 없어요? 이런 오페라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사업으로 신청하실 수는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김 부장님, 이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공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서 최대 지원액이 5,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페라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국회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을 때 다른 타 오페라단에서 차별을 한다고 상당히 오해를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페라단이 많잖아요. 이런 공연을 하고 싶어도 국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딸 수 있는 데는 따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는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저희들이 받아요. 일단 저희가 집행기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의 역력이 있거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다른 오페라단과 비교해서는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페라단이 보더라도 “3억을 지원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공연을 하는구나.”, “뉴서울오페라단이 정말 노력을 했고 많은 출연을 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을 염

두에 두시고 좋은 공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김진각 위원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콕은 오페라의 불모지잖아요. 굳이 방콕에서 창작오페라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지금 K-팝이 전세계에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창작오페라가 태국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어떤 성과를 바라보느냐 하면, 거기에도 음악대학이 있고요. 요즘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옵니다. 클래식 쪽이요. 특히 성악 쪽에서 유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없어서 폐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김진각 위원 : 동남아 학생들을 유치해서 클래식을 공부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클래식은 지금 엄청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예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요.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저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창작오페라를 왜 동남아에서 하지?” 동남아라는 나라들은 오페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요. 저 같으면 일본이나 오페라 선진국에 가서 노력을 하겠어요. 우리 창작오페라를 소개하는 시도를 할 텐데요. “왜 동남아를 가지?”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김진각 위원 : 그것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래서 오페라가 가게 됨으로써, 거기에도 클래식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 오는 것을 선호하며 한국과 교류 맺기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감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김진각 위원 :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럼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단장님 우리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페라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국 창작오페라가 이렇게 기존 서양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색다른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텐데 전혀 불모지라는 말입니다. 태국사람들이 오페라를 잘 몰라요. 그런 데에 가서 한국 창작오페라를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가 안 되고 “오페라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창작오페라를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작오페라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기존 오페라보다 우리도 이런 것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인기를 얻어서 세계시장으로 나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에 가서 오페라를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의 창작오페라를 오페라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에 가서 경쟁하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창작오페라가 갔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오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클래식 음악 부분이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좋은 성적들을 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도 외교활동을 나가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한국에서 그 나라의 유학생들을 받아 달라.”, 특히 “한예종에서 받아 달라.” 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원 외로 해서 많이 받잖아요. 전액 우리가 지원해주고 제3세계 국가의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진각 위원님은 어차피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면 당당하게 우리 창작오페라를 가지고 오페라가 성행하는 나라에 가서 경쟁해서 우리의 창작오페라를 더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이해를 했어요.

김진각 위원 : 3억이 많다면 많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운 문예기금으로 3억을 쓰는 건데요. 기왕이면 우리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물론 방콕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정말 오페라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것을 알리면서 과연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일본 같은 데에 가서 피나도록 싸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장인주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애를 쓰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내용과 상관없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부를 받기 전에 오셔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고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모니터링도 나가잖아요? 태국도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현지에 가서

공연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저희 민간단체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민간단체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시면 “여기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뭘 시정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인주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작년에 갔을 때 사실 공연 자체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와서 한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인사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공연을 볼 때 조금 지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태국 자체공연 1시간을 하시고 또 인사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것은 그쪽에서 한 것이죠.

정종열 위원 : 그런데 관객들은 계속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입장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정종열 위원 : 사회를 다 진행하셨는데요. 계획을 잡아놓은 게 아니셨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제가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저희도 급하게 써서 올라가서 했어요.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럼 공연을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인사말을 하시려면 다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의 돈을 갖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사실 통역이라는 것도, 국가의 높은 분들이 가실 때 통역하는 분을 몇 년 전부터 썼습니다.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간당 20만 원을 주고 통역을 썼는데 말이 잘 안 통해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유럽처럼 세련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정숙 위원 : 동남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전통이 강하고요. 그렇지만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기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이 강하지만 시각예술 같은 경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공연 쪽에서 전통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페라에 대해서도 거기의 일부층은 굉장히 전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잘 하시면 동남아 전체에 홍보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등을 감내하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를 쓰실 것 같고

요.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홍지원 단장님께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잘 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좋은 공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2023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지난 9월에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모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연중 초청이 발생하거나 운영의 변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재개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공모를 준비하면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모시기 문제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소규모지만 올해 4월에 별도공모를 한번 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별도공모에는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한국-캐나다 공동기금 등 3가지가 해당됩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정시공모를 통해서 80% 이상을 이미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예산 20% 정도 포션에 대한 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사업예산의 합은 5억 8,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캐나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정시공모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공모와 일정을 함께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괄기획자 공모에 2억 원, 리서치 사업 공모에 3억 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공모의 총예산은 10억 8,340만 원입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정시공모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저희 예술위원회와 해외 협력기관이 직접 협력해서 한국 예술가를 파견하는 지정형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별도공모를 통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문학작가 파견 사업을 재개하고 신규로 영국 에든버러의 네트워크 행사인 모멘텀에 공연예술 분야 및 축제 기획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보다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협력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캐나다예술위원회와 협력사업을 운영합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한국은 10억 원, 캐나다는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 리서치, 협업사업 공모까지 2개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총괄기획자 선정과 리서치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고 캐나다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먼저 캐나다 측과 논의된 명단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5월 둘째 주에 심의를 진행한 후에 결과는 5월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세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2023년도 문예기금 국제교류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셨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저희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 구성을 지정형으로 구성하든 위원님들과 1배수, 1배수씩 같이 구성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캐나다예술위원회와 공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동기금을 운영하셨던, 공동기금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과 캐나다 예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자문을 통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자문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74페이지입니다.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이 2024년 4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감독은 브라질 출신의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는 1995년 한국관 건립 이래로 한국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현

장 전문가분들 그리고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좋은 전시를 선보일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좋은 전시를 선보였거나 수상을 했던 국가관들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했을 때도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감독을 선발하는 부분을 착안해서 올해 공모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2022년 미술전 전시와 비교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공고를 앞당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전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자문위원회 주요 의견이 한국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국내 시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선정부터 평가, 자문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브라질 등의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보유한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섭외하였고요. 베니스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최종 1명을 선정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10개 팀 중에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3팀을 선정했고요. 2차 PT심의를 통해서 최종으로 야콥 파브리 시우스와 이설희 큐레이터를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작가는 구정아 작가 단독이구요. 향기 컨셉으로 ‘오도라마 시티’ 라는 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2024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미술감독 선정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2022년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연도별 평가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오늘 공연예술부장이 실연심의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다년간 지원사업이구요. 2022년도에 선정되었고 2024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개 단체에 70억입니다. 저희가 그냥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평가대상은 전체 46개 예술단체를 평가했고요. 평가지표는 지원사업운영 및 경영평가로 해서 100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은 장르별로 해서 전문가 3명과 공인노무사 1명으로 해서 장르별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평정하게 되고요. 평가진행 경과를 보시면 단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하고 인터뷰 평가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고 단체에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확정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추진 결과를 보시면 46개 중에서 2개 단체가 F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 단체들이 처음에 냈던 계획 대비해서 현저하게 내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F등급을 받았고요. 이 F등급을 받은 2개 단체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술단체들한테 공지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건은 조건부합격이구요. ‘○○○○○○○○’ 라는 곳인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조건부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평가단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8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 인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2022년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연도별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중장기와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중복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중장기는 중장기만.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아니면 그 단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 단체가요.

김예지 기획조정부 대리 :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만 중복이 안 되고요.

이훈경 위원 : 그렇죠. 동일한 작품만 중복이 안 되는거죠.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죄송합니다.

이훈경 위원 : 그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3억 안에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승미 위원 : 예를 들어서 C등급을 받은 경우도 그런 보조금은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C등급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S등급에 한해서는 증액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C등급을 연속해서 2번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다면 질 보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기존에 했

던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83 페이지 개선평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거고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80페이지의 평가단 명단에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평가위원들께서는 부문별로 함께 모이셨나요? 아니면 각각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얘기를 해 주시죠.

김예지 기획조정부 대리 : 장르별로 대면으로 모여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승미 위원 : 장르별로 3명 혹은 4명이 모여서요?

김예지 기획조정부 대리 : 예.

서승미 위원 : 그런 비디오 등을 참조하셔서요? 아니면 실제로 실연을 보셨나요?

김예지 기획조정부 대리 : 실제로 그 사업기간 중에 모니터링을 하였고 예술단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모든 것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다음부터 표를 만들 때 그냥 비수도권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비수도권이라고 하고 지역을 명시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단체가 얼마 이상이나 몇 번 이상은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속지원을 받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이 단체들은 3년 동안 받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3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3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알기로는 1기, 2기. 1기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1기와 2기로 해서 지금 4년 동안 받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휴식년제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기라고 해서 끝났고요. 연이어서 3년 동안 하는 것이지만 향후 2번을 받았으니까 휴식년제로 1번을 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 것을 지원받은 단체별로 한번 통계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단 ○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지원받았고 극단 ○은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통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라고만 하지 말고 분명히 밝히고요. 그렇게 표를 세분화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비수도권은 1기보다 엄청나게 강화를 했는데요. 이유는 1기 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트랙으로 나눠서 수도권 얼마, 비수도권 얼마라고 해서 2기 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평가의 지표가 따로 있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주로 데이터 평가입니까?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주로 정성평가고요. 평가요소가 계획 대비 실행, 제출기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관객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 단체들은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이의신청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수용해서 결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1기에는 평가위원이 누구였고 2기 때 평가위원은 누구였는지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김진각 위원 : 평가지표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계속 받는 데만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이게 3년 연속 받았고 누적된 지원액이 얼마라는 것도 조금 고려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은 오래 지속되는 게 필요한데 좋은 작품이면 다른 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지향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1기에서 2기로 넘어올 때 심사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면 이 분들이 지원받은 게 전부 다 나올 테고, 거기에서 총량의 법칙을 받아서 3억 정도를 혜택 보는 게 아닌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부터 저희가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같은 단체가 3억 내에서 다른 콘텐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배은주 위원 : 3억이 넘어가면 지원총량의 법칙을 넘어서서 제한적인 심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 지금은 3억이라는 지원총량의 법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원총량제라고 해서 3억을 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각각의 내역사업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예술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시는데요. “올려서 4억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깎을까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하는 단체들은 많이 이의신청을 하시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이의신청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거의 다 받아들이시네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23년도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83페이지고요.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지원사업 공모계획이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행정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서면의결을 받으려고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고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당초에는 광역문화재단과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 9억 3,8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은 10억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민간소공연장을 지원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공연예술부서에서 재단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광역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86페이지를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광역 지자체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과 똑같이 2023년도에도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자체공연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초청과 레퍼토리 지원까지 해서 조금 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모 추진계획(안)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 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9억 3,800만 원이고요. 300석 미만에 대한 민간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까지 포함해서 제작을 하거나 기획하거나 초청 또는 레퍼토리 등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민간소공연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내용 관련해서 직접경비, 운영경비까지 모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최대 6,000만 원 정도고 20개소 내외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10% 이상은 필수로 책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방법, 심의기준은 우수성, 공연장 운영, 기대효과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일정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지원신청 공모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의결을 드리고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6페이지 붙임은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광역문화재단과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이고요.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 쪽에서도 공연장 또는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과 같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려서 진행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민간소공연장을 지원했던 결과를 참고로 보시라고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2023년도 민간소공연장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소공연장 같은 경우 대학 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대학 내의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승미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지역주민이 모여지는 것도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거든요. 워낙 소공연장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칙이 있을 테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과연 진짜 수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도 항상 궁금한 게 “문화의 불모지는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 저희가 약간 지역적으로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묶어놓은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문화사각지대는 경기도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기’라고 묶여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도시는 괜찮죠. 분당 같은 경우 경기인데 그것은 이야기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기지역은 너무 큼니다. 인천이나 강화도도 인천지역에 있고 경기지역에 있지만 그 분들은 문화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이라고 묶여서 지원이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문화 사각지대를 이쯤에서 살펴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학교가 빠졌을까?”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 대전제가 교육부 소관으로 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말자는 부분이 있어서 걸러졌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소극장을 운영하는 곳이 자기 소유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임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10억으로 전국의 많은 공연장이 있고 대학로에도 많은 공연장이 있지만 다 주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운영하는 쪽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또 300석 미만인데요. 300석 이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안 해요?

이훈경 위원 : 서울시도 있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87페이지를 보시면 창작예술 공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정갑영 위원 : 2022년도 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훈경 위원 :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극장 공간 임대료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제작 여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다른 유형의 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

정갑영 위원 : 어쨌든 한 쪽으로는 격차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면 서울이 어쨌든 많고요.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신청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신청건수가 수도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더 많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실제로 교육부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 주는 지원은 절대로 안 해요. 0%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컨대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거기에서 주차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각지대, 물론 원칙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미진 위원 : 신청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예지 기획조정부 대리 : 200건 내외였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런데 선정된 극장들이 모두 잘 나가는 극장들이라서요.

서승미 위원 : ○○○은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배은주 위원 : 저도 질문을 할게요.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선정율과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답변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엄청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비수도권은 신청이 적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가 대안으로 안배를, 그러니까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점수를 안배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역불균형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83페이지에 보시면 평가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담아서 지역격차해소 관련된 부분을.

배은주 위원 : 접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가점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은주 위원 : 그렇죠. 가점제도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저희들이 지금 지역균형제도라고 해서 작년에 정기공모를 할 때 내역사업별로 얼마만큼의 신청이 들어왔는지 %를 낸 다음에 내역사업별로 할 때, 해당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창작지원사업 같은 경우인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수도권은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하면 모두 수도권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 창작지원도 일부로 비수도권 트랙을 뒀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국제사업 같은 경우 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지역균형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일을 자꾸 만들게 해서 미안한데요. 여기 지원할 때 다 아는 데가 아닙니까? 다 아는 곳인데요. 전체 공연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 매출이나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시고요. 가능하면 경영상태가 안 되는 곳부터 지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역도 그렇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이름도 있고 잘 되는 곳을 또 지원하면 공정성 시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잘 되는 곳을 지원해서 더 잘 되게 하겠다고 목표설정을 하시면 그렇게 가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연계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면 더 세분화된 경영상태까지 파악해서 지원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얻어야 할 것 같아요.

남요원 감사 : 제가 감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한조건이 붙어있어요. 그 제한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업명칭은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예술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공연장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유형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첫째가 예술단체여야 하고 그 예술단체가 자기 소유의 공연장이거나 자기들이 장기렌탈을 했던 공연장인 경우의 조건을 가져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처음부터 일종의 규제인데요.

남요원 감사 : 규제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그런 규제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말하자면 300석 미만이지 않습니까? 299석까지 되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역균형제도는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보다는 예술단을 직접 운영하는 극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일반 극장으로 임대업을 하는 곳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예술단이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민간소극장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경기도도 4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경기도가 1,500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간소극장에서 자기 예술단을 가지고 운영하는 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민간소공연장지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정갑영 위원 : 누가 봐도 “공연장을 지원하는 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타이틀을 바꾸세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민간소공연장예술단지원사업’, ‘전속예술단지원사업’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정종열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극이나 특정 장르가 유리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단체하고 콜라보를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콜라보가 아닙니다.

정종열 위원 : 같이 하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자기 극장을 갖고 자기 전속단체가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죠.

정종열 위원 : 음악은 거의 없죠. 연극 몇 군데만 된다는 것이죠.

장미진 위원 : 그런데 분류로는 4군데나 있는데요.

정종열 위원 : 없지는 않아요.

남요원 감사 : 상대적으로 음악이 적고 무용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상대적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기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또 공연예술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용은 상시적 공연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용은 대관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또 다른 트랙

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효과가 굉장히 큰 지원입니다. 극장도 유지하고 예술단도 유지하며 예술단을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극단이라고 해도 관객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원액 5,300이면 사실 1명의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타이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훈경 위원 : 아무래도 연극 쪽 %가 있다 보니 궁금한 것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극장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지점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세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1년 중 10개월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월세 지원을 받는 극장은 외부로 극장 대관을 할 때 공식적인 가격의 50%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짜리 극장이 10개월 지원받으면 극단들한테 대관을 해 줄 때는 70만 원의 50% 미만으로만 받아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단체들은 극장을 대관할 때 대관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극장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월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만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극장 안에서 극단을 같이 운영하는 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자비를 털어서 월세를 내고 극단을 운영하고 제작비로 몇 천 만 원씩 내다보니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극단을 갖고 있는 극장은 제작에 대한 지원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처럼 등급을 매깁니다. 1년에 몇% 이상은 외부대관을 무조건 줘야 하고 자체공연만 하면 안 됩니다. 외부대관으로 몇%를 하고 기획공연은 얼마나 있는지? 페스티벌은 얼마나 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연도 선정할 때 등급에 기준하여 연속성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에 제가 몇 번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도 반영하면 좋겠는데요. 초청공연이나 레퍼토리 공연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초청공연이나 레퍼토리를 몇% 이상하라고 제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1년 중에 그 극장이 1개 작품만 초청하고 나머지는 자체공연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그 극장의 그 극단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되고 초청공연을 선정하는 기준을 그 극장한테만 준다면 생기는 위험성이..... 지방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한정적이거든요. 몇 개가 없거든요. 그러면 뻥히 자기들이 아는 단체, 관계성이 있는 단체만 초청을 계속하고 돈이 그쪽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걸 수 있는 제한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초반에 이 얘기를 하면서 대관료지원 사업이 약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청공연 등의 %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가 확보되면 대관료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단체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녹아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서면의결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제가 못 찾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정위원이 빠져 있어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이것은 2022년도 것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참고로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장인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얼핏 보기에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뭘 지원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개 단체를 제가 보면 예술단체를 확실하게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되어 있네요.

장미진 위원 :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울지하고 유사한 사업이었잖아요? 소극장의 임대료를 빌려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내려오면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통상 단체를 얘기할 때 전속이 있고 상주가 있고 입주자가 있다고 하면, 입주는 렌트의 개념으로 하는 거고 전속은 정말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상주는 소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대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민간소극장은 단순하게, 통상 보면 건물에서 렌트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술가인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의 공연장을 운영할 수가 있고 렌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연장 자체는 너무 어려워서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속단체가 있는 극단의 경우, 예를 들어 산울림 같은 경우 대표이시면서 밖에서 해서 극을 하나 꾸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통상 365일 할 수는 없고 3번 아니면 4번 정도는 자기의 것을 꾸리고 나머지는 페스티벌이나 렌트를 하면서 생명줄을 놓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민간소극장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순전히 말해서 전속이 있는 예술단체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까 예술단체를 가진 민간소공연장 사업 선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프로젝트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남요원 감사 : 그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남요원 감사 : 최초의 자격조건의 부여를 이제는 달리해야 되는 거죠.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 져야 되는 거죠.

남요원 감사 : 공모의 자격조건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서승미 위원 : 자격조건이 조금 달라져야죠.

김진각 위원 : 지원사업의 이름도 조금 불분명해요.

배은주 위원 : 제한을 조금 더 풀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이잖아요. 규제를 좀 풀고요.

남요원 감사 : 어차피 기획공연이나 레퍼토리, 페스티벌도 할 수 있게 허용하니까 자격조건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배은주 위원 : 규제를 풀어져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남요원 감사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상 상정된 안건과 보고사항은 의결이 되고 보고가 끝났는데요. 첫 번째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사권에 대한 문제로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만 남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995호 신임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인재성장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사무처장은 송시경 사무처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없고 본 안건에 대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3년도 4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4월 위원회 회의 일정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28일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저희들 미술관 3층이 그때까지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미술관 3층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의 결과 송시경 사무처장님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장님으로 임명하게 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이 조금 더 안정화 되고 조금 더 조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장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요. 오히려 내부의 소통에 있어 아직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리고 세대적인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결국 직원과 위원장 간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고 위원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냥 밀어붙이고 일만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잘 다독이고 그런 부분의 애로점을 정확하게 들어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게 제가 이번에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직원들의 애로점 그리고 직원들과 보다 더 친밀하게..... 저는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 사무처장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조직원들이 지도부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과거를 털어내고 회복이 돼서 조직원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조직원 간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고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잘 알겠습니다.

7.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장시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4월 28일 오후 2시 미술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회의 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